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학월보

2012
제227호(통권446호)

1

- 장학특집 / 2012 달라지는 경남교육
- 교육정보 / 이달의 교육기부





2012년도 경남 교육정책

교육 지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정책 방향

1.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2.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4. 희망주는 교육복지
5. 신뢰받는 교육행정

역점 과제

1. 기초와 기본 교육 충실
2.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3. 교육기부운동 활성화
4. 진로 · 직업교육 내실화
5. 국토사랑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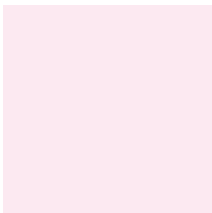
특색과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임는 학교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2. 1 제227호(통권446호)



02 권두언
04 교육감 동정
05 장학현장
06 교육 칼럼
08 특집 /

2012 달라지는
경남교육

• 흑룡의 여의주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 고영진

• 학교회계 예산편성은 교직원의 참여로부터 / 이현욱
• 2012 경남 교육정책 / 심광보

• 5세 누리과정 전면 시행 / 이은희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수학교 '학교 기업형 직업훈련실' 운영 / 원성호
• 스마트교육, 교육혁명의 시작 / 홍정희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윤점자
•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도시형·농촌형의 교육복지사업 추진 계획 / 류경이
• 나만의 열린 통로 "나이스 학생 서비스" / 조복선

23 좋은 수업 다지기

• EBS와 함께 영어 실력을 길러요 / 서소혜
• 새로움을 다하는 수학 수업 아이디어 / 홍은표
• 보고 듣고 만지며 알아가는 재미있는 수학놀이 / 신승화

29 교육정보

• 이달의 교육기부 / 백운영
• 국제교육개발협력 현황과 과제 / 구현숙

32 특색교육현장을 찾아서

• '똥까치'와 함께 영어 실력을 길러요 / 신경자

34 명품학교, 명품교육

• 감성교육으로 행복한 배움터 만들기 / 하옥진
• 전통문화체험에 꿈이 열리고 / 이무경
• 가(伽)·무(舞)·악(樂)이 조화된
UNESCO 등재 문화재 가곡교실 운영 / 이정희
• 노래교실 운영을 통한 즐거운 학교 / 허기업
• 연극을 통한 또 다른 자신 찾기 / 정태식
• 독서애에 빠진 섬마을 '사랑도' / 정성근
• 태평양을 마주하고 미국 학생과 소통하다 / 이종직

55 전문가초대석

• 페이스북의 특성과 활용법 / 최재용

59 참여마당

• 교 원 - 꽃 보석반지와 교장선생님 / 오영란
• 학부모 - 행복이 깃든 요가교실 / 서지현
• 학 생 - 펄벅의 '대지'를 읽고 / 백지원

63 향기나는 서가

• 샘에게 보내는 편지 / 하승우

65 지상갤러리

• 환희 / 박정심

▶ 표지사진 - 김형기(창원 삼계초등학교)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2월호 모집 기간 : 2012년 1월 15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독자후기 등 • 분량 : A4 1~4매 내의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2년 1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과장 문오권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이국식 • 편집주간 : 교육과정과 장학사 박정화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준일, 구현숙,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경남교육은 특색과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
 운영으로
 건강한 학교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흑룡의 여의주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학교를 비웃지 않게 되었다. 집단무기력증에 빠진 병든 학교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학교는 희망이 있는 곳이고, 교사는 눈물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고달프고 힘들어도 기다리고 다독이면서, 존재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눈여겨보는 사람들 때문에 학교가 좋아졌다. ‘학교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지금 이 순간, 가슴이 따뜻해진다. 여전히 학교를 사랑하는 무수히 많은 ‘당신’ 덕분이다.”

-『학교란 무엇인가』, EBS〈학교란 무엇인가〉제작팀-

존경하는 교육가족과 도민여러분,
 희망으로 여는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함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임진년 새해,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노력으로 발전한 경남교육이 새해에도 더 나은 교육을 지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경남교육의 첫 장을 『학교란 무엇인가』의 프롤로그로 열었습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커지는 만큼 실망도 함께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남교육은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면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2012년을 마감하는 송년호에는 학교를 사랑하는 무수히 많은 ‘당신’이 더 많아졌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지난해는 여러분의 열정과 관심으로 경남교육의 특색과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 읽는 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이제 건강한 학교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문화가 학생들에게 내면화되어 노래와 운동과 책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겸비한 학생으로 자라는 양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에서는 최초로 경남미래교육재단이 출범합니다. 미래교육재단은 더불어 함께하는 교육의 실천으로 경남의 인재 발굴 육성과 함께 장학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도 미래를 열어주는 일입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뿌듯한 자부심으로 경남의 미래를 위한 교육기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60년 만에 오는 흑룡의 해 2012년은 격랑의 해이면서 역동의 해로 예측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화의 흐름은 교육현장에서는 곧 교육의 내용이며 방법의 변화로 인식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의 세계가 교육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교육현장에서는 교과서가 교육내용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이제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보를 가려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교육기기를 들고, 또는 교육포털에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끼리 온라인으로 배우는 사이버 교육 등으로 변해가는 교육현장에서 비판적인 사고, 통찰력, 이해력, 논리적 접근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은 온라인이 교육혁신을 주도하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더욱 절실해진 교육 요소가 되었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신념으로 2012년 경남교육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학교는 희망이 있는 곳이고, 교사는 존재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눈여겨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돕는 일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흑룡의 여의주를 갖는 자, 세상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흑룡의 여의주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2012. 1.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4-



03-



05-



06-

- 01 2011. 경남교육박람회 · 경남진로교육체험전 개막
- 02 경남미래교육재단 기금 전달
- 03 제1회 교육감배교육가족배드민턴대회 출전 격려
- 04 저소득층 학생 돕기 김장담그기 행사
- 05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감사패 수여
- 06 효성그룹과 교육기부 협약체결



07



08



09



10



11



12

- 07 의령교육지원청 - 2011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 08 밀양교육지원청 - 명문대 탐방활동
- 09 김해교육지원청 - 행복한 음악회
- 10 경남학생교육원 - 한복입기 체험부스 운영
- 11 경상남도유아교육원 - 겨꿈내기 교재교구 체험
- 12 경남유아체험교육원 - 자문운영위원회 실시

학교회계 예산편성은 교직원의 참여로부터



이 현 욱
경상남도교육청 예산복지과장

새 학년도의 예산편성은 한해의 교육활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활동이며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모든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러나 단위학교는 학년도 말까지 두 달 정도의 여유는 있는 것 같다.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년 새 학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2012학년도의 교육활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학교회계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교직원 참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학교회계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의 학교회계제도는 2001학년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하게 된 기본 취지는, 그 이전까지 학교자체의 예산편성권이 없이 교육청에서 배부된 예산을 단순 집행하는 역할만 해오던 것을 단위 학교에 자율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단위 학교 중심, 교육과정 중심의 예산체계이며, 나아가 단위 학교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재정계획서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된 것이다.

한편, 종전에는 학교의 자금을 교육청에서 받아 집행하는 자금, 수익자부담경비, 기타 각종 자금 등 여러 종류로 관리하고 있어서 실무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체적인 자금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었다. 하





지만 학교회계제도 도입 후부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학교회계로 관리되어 누구나 예산 규모와 집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예산의 투명성이 크게 확보되었다. 더욱이 2010년 사업별 예산과 학교회계시스템이 도입되어 교직원들은 실시간으로 예산현황과 집행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투명한 학교회계는 조직 구성원인 교직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그들의 활발한 참여는 학교회계 예산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실현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단위 학교의 특수성을 볼 때,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이고, 학교장은 예산안을 당해 연도 1월 말까지 편성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상 당해 연도 1월 중에는 예산편성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므로 전년도 12월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12월 중에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교직원 의견수렴 등이 사전에 필요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회계 예산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교직원들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말 예산이 확정된 후 3월 경 교육계획이 확정됨으로 인해 교육계획의 내용을 완벽하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3월 1일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확정된 예산에 대한 교육사업이 변경되는 등 현실적인 모순점이 있다. 현재의 학교회계제도 아래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지만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교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된 예산은 예산의 지연집행, 축소집행, 미집행 등으로 과도한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본다.

학교회계는 단위 학교의 책임경영제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제도이다. 단위 학교 책임경영제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교로 배분하는 운영비를 확대하고 또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 학교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2학년도의 학교회계 예산편성을 위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많은 교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투명한 예산편성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첩경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12. 경남 교육정책



심 광 보

경상남도교육청 기획홍보담당관 장학관 직무대리

I. 경남 교육정책개요

1. 목적

- 2012년 경남교육청 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
-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추진 방향 제시
- 각급 학교의 『학교교육계획』 수립·추진 방향 제시

2. 내용

- 교육지표 : 경남교육이 추구해야 할 교육적 지향점
⇒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 비전 : 경남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 5대 정책방향 : '교육 지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하는 기본 방향

1.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2.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4. 희망주는 교육복지
5. 신뢰받는 교육행정

- 역점과제 : 행·재정적 역량을 모아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과제

1. 기초와 기본 교육 충실
2.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3. 교육기부운동 활성화
4.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5. 국토사랑교육 강화

- 특색과제 : 경남교육의 특화 교육정책
⇒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읽는 학교]

3. 경남교육정책의 적용방법

-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 교육지표, 비전, 정책방향은 ‘경남 교육정책’ 과 동일하게 적용(비전 예시: 꿈을 키우는 학교·함께하는 창원교육)
- 학교 : 실정에 맞게 반영

II. 정책방향별 정책과제 목록

정책방향	정책과제
1. 소질을 살리는 인재 교육	1-1.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교교육과정 1-3. 유아교육 선진화 정착 1-5. 의사소통 중심의 국제화 교육 1-2. 맞춤형 학력향상 1-4.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1-6. 소질·적성 계발 교육 강화
2.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 교육	2-1. 찾고 키워주는 창의인성교육 2-3. 나라사랑 교육 2-5. 지능형 맞춤 지식 정보화 교육 2-2. 탐구중심의 과학·영재 교육 2-4. 꿈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3-1.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교육 3-2. 건강한 삶을 위한 학교 보건교육·보건관리 3-3. 안전하고 질 높은 건강 급식 3-5. 맞춤형 대안교육 3-4. 안전한 학교 문화 3-6. 교육력을 제고하는 교육환경
4. 희망주는 교육복지	4-1. 함께 누리는 공정한 교육 4-3.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 4-5. 신바람 나는 교직원 근무여건 4-2. 사교육비 경감 4-4.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교직원
5. 신뢰받는 교육행정	5-1. 깨끗한 교육행정 5-3.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5-4.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 서비스 5-2.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5-5. 교육의 질 관리

III. 경남 교육정책의 실현

경남 교육정책은 2012년도 직속 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계획’ 과 단위학교의 ‘학교 교육과정편성·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설계이다. 직속기관·교육지원

청·단위학교에서는 각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공동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남교육 지표’를 실현해야 한다.

경남 교육정책은 『교육지표』, 『정책방향』, 『역점과제』, 『특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교육지표는 경남교육이 추구해야 할 교육적 지향점이다. 단위학교는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통하여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서는 단위학교가 이 지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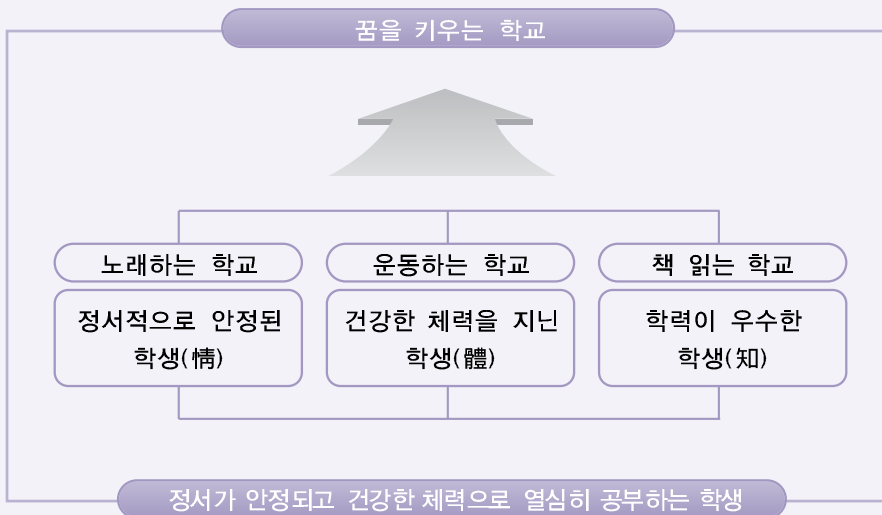
□ 정책방향은 경남교육이 구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으로서 도교육청은 관련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하며,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교육현장에서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역점과제는 경상남도교육청이 2012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과제로서 경상남도교육청의 행정적, 재정적 역량을 모아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과제이다.

□ 특색과제는 경상남도교육청이 특별한 교육적 의도를 갖고 추진하는 특화된 교육정책이다. 전 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에 융해되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IV. 경남교육 특색과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읽는 학교



5세 누리과정 전면 시행



이 은 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

1. 들어가며

2012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일원화하여 모든 만 5세 어린이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한다.

교과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두고 만 5세 아동에게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구성하였으며,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과의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유치원교육과정은 1969년 제 1차 유치원교육과정을 시작으로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까지 7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1년 5세 누리과정의 제정 고시로 3,4세 교육과정과 5세 누리과정으로 나뉘어 종전의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연령별 교육과정으로 바뀐다.

5세 누리과정은 교육과정의 변화와 더불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만 5세아 가정에 교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이다.

2. 5세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

가. 만 5세아의 기본생활 습관과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나.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 전인발달이 고루 이루어진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마.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주도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놀이중심의 통합과정으로 구성한다.

바. 1일 3~5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한다.

3.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주요 내용		비고
2011년도	2012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교육과정(3,4,5세 수준별 교육과정) ▶ 소득하위 70% 이하 만 5세아 가정 교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유치원 : 월 5만9천 원 - 사립유치원 : 월 17만7천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5세 누리과정' 으로 일원화 ▶ 유치원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별 교육과정 → 연령별 교육과정 - 5세 누리과정 + 3,4세 교육과정 ▶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만 5세아 가정 교육·보육비 100%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유치원 : 월 5만9천 원 - 사립유치원 : 월 2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액 연차적 인상 (2016년까지)

4. 마치며

5세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모든 만 5세 유아는 공통의 교육과정을 배우게 되어 만 5세 유아 교육·보육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만 5세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학비를 지원받게 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 될 것이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특수학교 '학교 기업형 직업훈련실' 운영



원 성 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

1. 경남 최초, 특수학교 '학교 기업형 직업훈련실' 운영 학교로 선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방향에 따라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 내실화 방안(2010.01.06.)'을 수립·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창원천광학교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



부로부터 경남 최초(2011.2.22.)로 '학교 기업형 직업훈련실' 운영학교로 선정되어, 총 20억원(특별교부금 12억원 지방비 8억원)을 지원받아 올해부터 장애학생들에게 학교 내에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로 진로·직업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 기업형 직업훈련실'은 지상 2층, 연면적 1,200㎡의 규모로 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2012년 3월 초에 학교 기업 신축 건물을 착공하며 2012년 11월 말에 준공 및 개관식을 할 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 '맞춤형 현장 중심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실시

'학교 기업형 직업훈련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본교에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현장중심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산업체 현장 실습과 베니베니커피 아카데미와 연계한 바리스터 교육을 실시하였고, 정서장애 학생들은 직업재활 센터와 연계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활동을, 지체장애학생에게는 직장예절교육 및 면접 훈련을 하여 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꿈을 심어 주고 있다. 또한 전공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웰빙푸드 실습을 통해 유기농 콩나물, 건조채소, 웰빙 스낵을 생산하는 등 ‘학교 기업형 직업훈련실’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직무를 익히고 있다.

3. 장애학생의 꿈 실현! 전국 최초로 대기업 취업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에 맞춘 진로·직업교육 활동으로 대기업인 LG전자 창원 1, 2공장에 정규직원으로 4명의 청각장애 학생이 취업되었고, CGV 영화관에도 1명이 취업되는 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LG전자에서는 이번 취업 건으로 인해 더 많은 청각장애인을 모집하는 계기가 되었다.

4. 지식경제부 RIS 사업단과 연계한 창원천광학교 ‘학교기업’ 운영

창원천광학교 ‘학교 기업형 직업훈련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연구특화사업단(RIS)인 국립창원대학교 창업양과 장류연구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창업양과를 이용한 양과엑기스를 생산·판매할 예정이다.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에 있어서 지식경제부의 지역특화사업단(RIS)과 연계하여 추진 중인 학교는 전국 최초이며,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기업 운영에도 전국적으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장애인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을 유지하여, 장애학생들에게 졸업 후 학교 내 사회적 기업으로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장애학생들도 공공기관의 행정도우미, 도서관의 사서도우미, 우체국의 우편도우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2012학년도 창원천광학교는 선진화된 ‘학교 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신축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의 장이 마련될 것이다.



스마트교육, 교육혁명의 시작



홍 정 희

경상남도교육청 과학직업과 장학사

수많은 정책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지식 전달과 입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 제도에 만족하는 학생보다 불만족인 학생 수가 훨씬 많으며, 기초학력 저하, 학업 중도포기 학생 증가, 사교육 의존 등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우리의 교육력은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교육경쟁력은 59개국 중 29위로 저조한 실정이다. '2020 대한민국, 다음 십년을 상상하라' 라는 책에서, 마이클 비버는 대한민국의 낡은 교육을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을 조언하였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스마트기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디지털 원주민의 특성을 지닌 학습자에게 맞춘 교육환경으로의 변화는 이미 여러 선진국들에서 볼 수 있는데, 미국의 SRI International School, 영국의 Building School for the future, 핀란드의 아르벤과 고등학교, 싱가포르의 Future School 등 많은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능형·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해 스마트교육을 통해 교육 혁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마트교육은 'IT기술과 네트워크 지원을 학교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교육환경 등 교육체제 전반을 혁신하는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으로,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글로벌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재능을 발굴·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SMART)’라는 용어는 자기주도적으로(self-directed) 흥미롭게(motivated) 내 수준과 적성에 맞는(adaptive) 풍부한 자료(resource enriched)와 정보기술을 (technology embedded) 활용하여 학습한다는 의미이다.

스마트교육을 통해 획일화된 교육을 개별화된 교육으로, 정형화된 지식교육을 다양한 지식교육으로 입시 중심교육을 창의성 중심교육으로 전환하여 개인별 선호와 재능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2011년 현재 22위에서 2015년에는 세계 10위권 진입, 2025년까지 세계 3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교육은 크게 5대 추진 전략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을 통한 교육내용 혁명
- 둘째, 온라인 수업 및 평가 활성화를 통한 교육방법·평가의 혁명
- 셋째, 교육 콘텐츠 자유 이용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환경의 혁명
- 넷째, 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 역량 강화
- 다섯째, 클라우드 교육 서비스 기반 구축이다.

디지털교과서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문항, 학습지원 기능을 담고 학생들이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수업을 활성화하여 질병이나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 학교 사정상 개설되지 못하는 교과를 희망하는 학생 등에게 학습의 기회를 넓혀줄 것이다.

또, 시도교육청에는 기초학력 미달 예방·진단·처방시스템을, 학교에는 온라인 수행평가체제를 구축하고, 2015년까지 학업성취도평가를 단계적으로 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학습 방법을 제공해 학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스마트교육으로 순조롭게 변화하려면 교원 연수가 중요한데, 스마트교육 선도교원을 양성하고 2012년부터 매년 전체 교원의 25%씩 스마트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스마트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IT기반의 스마트교육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인프라와 콘텐츠입니다. 무선망과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해 클라우드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교육 관련 기술 표준을 개발하며, 교육콘텐츠 활용을 위한 오픈마켓을 조성하여 공공목적에 위한 자유로운 콘텐츠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똑똑한 스마트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여, 각자 그리고 다 함께 성장함으로써 꿈을 이루는 교육혁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가 다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윤 점 자

경상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주무관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인성 함양,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식생활교육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와 교육청,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학교급식의 질을 한 층 더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고 수요자 중심의 급식 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 학교급식 지원사업 확대

▶ 무상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확대

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① 동지역 저소득층 차상위 120% ② 10개 군 읍면지역 초·중·고 ③ 8개 시 읍면지역 초·중	① 동지역 저소득층 차상위 130% ② 18개 시·군읍면 지역 초·중·고 ③ 동지역 초 4~ 6학년
식품비	교육청	237억원	366억원
	도청	181억원	366억원
	시군	320억원	489억원
	계	738억원	1,221억원
윤열비 및 인건비	교육청	687억원	764억원
학 교 수		555교	580교
학 생 수		18만4천명(37%)	26만6천명(54%)

- 연중 상시적인 무상급식추진 협의회 및 워크숍의 활성화를 통하여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도모
- 학교급식 수요자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한 정책 만족도 조사 및 추후 정책 반영

▶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

- 경상남도청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거점 센터 구축 촉구
- 경상남도내 지역별 대도시 농협 유통센터 등을 활용하여 사업 초기 자본을 축소하고 효과적인 식재료 운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김해, 창원, 진주 등에 다이아몬드형으로 거점센터를 구축할 것을 건의하는 등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추진 방안 모색

▣ **올바른 식습관 관리 능력 배양**

▶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교육 교재 개발 사업 추진
 - 시범학교 운영 : 4개교(도동초, 합천초, 봉원중, 진해중)
 - 교재개발 : 초등 「싱글빙글 행복한 식생활」(3~4학년용), 중등 「건강한 식생활」 개발
 - 개발비용 : 1천 8백만원
- 식생활현장체험 교육 활동비 지원 : 초등 10개교, 3천만원 지원
- 학교급식관계자 식생활현장체험 활동 운영 추진 : 연간 2회 실시
 - 다양하고 내실있는 학생 식생활현장체험활동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 영양(교)사, 조리사 연수를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 : 2회 개최
- 올바른 급식문화와 안전한 먹거리 정보를 제공을 위한 경남 우수 학교급식 박람회 개최 : 6월말~7월초(4일간)

▣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

▶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 식약청 등 지자체와 합동 점검 및 간부 공무원 특별 점검 실시

▶ **학교급식 시설 개선 및 급식 기계기구 교체·확충 사업**

(단위 :천원)

순	사업분류	대상학교	예산액	비고
1	급식시설개선사업 (증·개축및 현대화 등)	초·중·고 10개교	2,080,584	
2	급식시설 보완	초·중·고 10개교	337,236	
3	노후기계기구 교체	초·중·고 276개교	1,751,992	
4	신설학교 급식기계기구 확충	신설 유치원 및 학교 4개교	230,769	
계		총 300개교	4,400,581	

▶ **지역교육청별 급식자문단 운영**

→ 신설 및 증·개축, 급식 현대화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

‘꿈을 키우는 학교 함께하는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도시형·농촌형의 교육복지사업 추진 계획



류 경 이

경상남도교육청 예산복지과 장학사

I. 들어가며

우리의 경제가 발전되고 사회구조가 선진화됨과 동시에 지역간·계층간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두드러지는 양극화 현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학생들은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적·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고 있으며 대체로 자존감이 낮고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어 학교교육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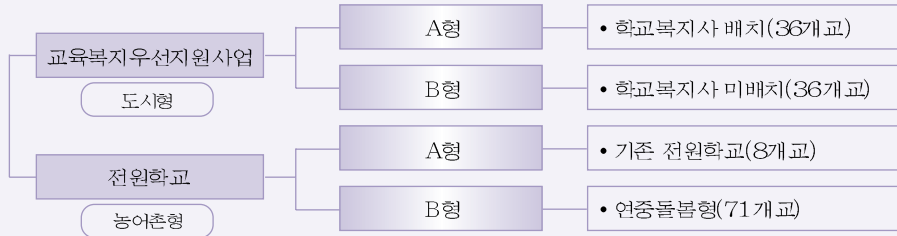
교육복지사업은 이러한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를 이루는 과정이 개인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한 배경적 조건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출발점 평등 구현으로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복지사업을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33개교), 농어촌연중돌봄학교(52개교), 희망키움학교(36개교) 총 121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적·문화적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II. 달라지는 도시형·농촌형 교육복지사업

달리지는 교육복지사업은 전원학교의 일부와 희망키움학교, 농어촌연중돌봄학교의 운영기간 만료(2009년~2011년) 및 사업 효율성 제고, 수혜학교 확대 등으로 보다 나은 교육복지사업을 위한 유사 사업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시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A형, B형)과 농촌형 전원학교(A형, B형)로 2012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1. 희망키움학교 육성사업은 폐지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전원학교(B형)로 통합 운영
2. 농어촌 연중돌봄학교는 폐지하고 전원학교(B형)에 통합 운영
3. 2012년 교육복지사업 추진 개념도



4. 2012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전원학교 운영 계획

구분		신청 조건 (초·중학교에 한함)	2012년도 사업학교 수			교당평균 지원액	비고
			기존	(공모)	합계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A형	• 동·읍지역 기초수급자 40명 이상 (면지역 일부 포함)	22	14	36	9천2백만원	교육복지사 배치
	B형	• 동·읍지역의 학생수 200명 이상 (면지역 일부 포함) -기초수급자 30명 이상 또는 7% 이상		36	36	5천만원	
전원 학교 육성 사업	A형	• 기 선정	8		8	3천~1억원	
	B형	• 면지역의 학생수 200명 미만(동· 읍지역 일부 포함)		71	71	2천5백만원 (5천만원)	특교배정시 추가 지원
합계			30	121	151	총 사업비 85억7백만원	

5. 기존 학교 중 비선정학교(탈락학교)의 후속지원 계획
- 중단 후 2년 간 : 1차년도(2천만원 정도), 2차년도(1천만원 정도)

III. 나가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중 교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인 애로사항이 아닐까 여겨진다. 교육복지사업은 선생님들께는 힘든 일이지만 소외계층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고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애써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2012년 새롭게 시작되는 교육복지사업도 전체 교직원에 대한 연수로 사업의 이해와 마인드를 높여 다 같이 합심하여 추진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의 불평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선별적 복지에서 진정한 교육복지인 보편적 복지의 점차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만의 열린 통로 “나이스 학생 서비스”



조복선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과 주무관

2002년 교원의 업무경감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나이스가 시작되었고, 이후 교무업무 분리, 예산/회계업무 분리,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학부모서비스 제공 등 많은 변화와 시련을 겪으면서 2011년 차세대 나이스가 탄생하였습니다. 차세대 나이스에서는 2012학년도부터 재학 중인 학생이 나이스를 통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 등 본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학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 추진 배경

가. 나이스에 수집된 재학생의 정보(학생생활기록,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 등)를 담임선생님 또는 학부모를 통해서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보장된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나. 재학생이 나이스에 수집된 본인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물리적·확대 및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2학년도부터 학생서비스 제공

2. 추진 경과

- 가. 2009년 : 교육적 타당성 및 효과성, 서비스 대상 및 내용, 서비스 제공방법 등에 대한 기초연구 실시(교육과학기술부)
- 나. 2010. 4. ~ 2011. 2. : 차세대 나이스에 학생서비스를 포함하여 응용프로그램 개발
- 다. 2011년 : 시범운영 실시

- 1) 상반기 : 4개 시도(경남-단성고, 충남, 대구, 대전)의 고등학교 대상
 - 2) 하반기 : 4개 시도(경남-신진초, 충남, 대구, 대전)의 초·중·특수학교로 확대
- 라. 2012년 3월 : 본격 서비스 실시 예정

3. 인증방식에 따른 학생서비스 제공 항목

인증방식	서비스 항목
공인인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학교생활 (36종) • 창의적 체험활동 (5종 제공 예정) • 학교정보 (과목 및 담당교사, 가정통신문, 시간표)
아이디 / 비밀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학교 (3종) • 서비스 소개 및 신청 (학생서비스 신청)
무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정보 (학교기본정보, 학사일정, 급식식단표) • 참여활동 (에듀넷 어린이기자단,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 • 입시정보 (3종 제공 예정) • 에듀넷 학습정보 (7종) • 서비스 소개 및 신청 (학생서비스 소개, 자주 묻는 질문)

가.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학생과 같이 공인인증서 관리가 어려운 학생들은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학부모 서비스의 본인 학교생활정보(성적, 건강기록부등)를 열람토록 안내 필요

나. 범용 공인인증서(은행용등)를 발급받은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학생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인인증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4. 기대 효과

- 가. 재학생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보장
- 나. 학생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제고
- 다. 인증방식에 따라 서비스 제공항목을 차별화하여 보안 강화

EBS[®]와 함께 영어 실력을 길러요!



서 소 혜
김해 진영금병초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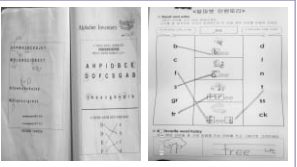
▣ EBS^e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영어노출 환경 극대화하기

접근이 용이하고 개별화 학습이 가능한 영어교육방송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해 교육과정 시간운명을 고려하여 ‘틈새형 EBS^e, 수업형 EBS^e, 과제형 EBS^e’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3학년 적용)

활용 시간대 및 활용 프로그램명		시간	활용 프로그램 성격	프로그램 화면	활동 사진
수업형 EBS ^e	정규 수업 시간 →초3교과서영어 →Go For It	40'	▶ 교과서 보완 클럽뱅크에서 차시에 맞는 section을 골라서 제공되는 VOD파일을 다운받아 활용 가능		
	특별 활동 시간 →SEL2 English →Cook Cook	40'	▶ 학습+재미 영어로 배우는 요리활동으로 학습과 재미가 접목된 프로그램		
과제형 EBS ^e	가정에서의 심화 보충시간 →Play Time →Story Quiz	40'	▶ 수준별 영어 과제 자료 개인별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다시보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준별 프로그램을 안내함		
	아침 자습 시간 →Sunny Town →I Can 파닉스	20'	▶ 학습+재미 철자와 소리의 관계를 알고 알파벳의 소리와 모양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청 후 EBS ^e 기록장에 쓰기 활동으로 연계함		
틈새형 EBS ^e	우유 마시는 시간 →Milk Time →moomoo	10'	▶ 편안함+즐거움 우유를 마시면서 편안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쾌한 노래와 율동을 하면서 외국인 사회자와 어린이들의 대화를 듣고 주제 표현을 익힘		
	종례 시간 →Sing Sing 영어동요	5'	▶ 편안함+즐거움 손 유희, 율동,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영어동요를 익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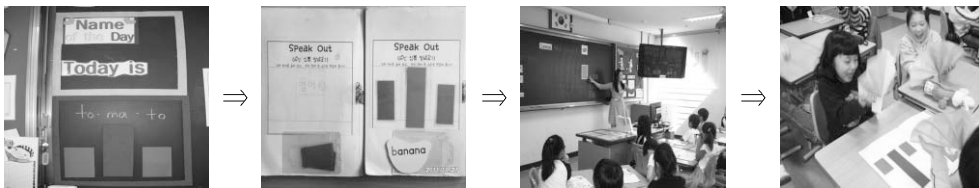
▣ 파닉스 학습을 기초로 Reading & Writing 실력 기르기

영어 도입기의 아동들은 알파벳과 파닉스 학습을 기초로 하여 듣기·말하기(음성언어) 기능에 읽기·쓰기(문자언어) 기능이 균형을 이룬다. 이에 3학년 아동의 쓰기의 기초를 다지고자 실시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Sounds Fun 책 만들기	알파노트 쓰기	알파벳 인벤토리
주1회 아침시간을 이용해 알파벳인식을 위한 읽기 연습 활동으로 1학기에 보충그룹의 수준별 학습으로 이용	단원 3, 4차시 Read & Write 뒤에 연결하여 심화그룹의 수준별 학습으로 Letter와 Sound를 읽고 쓰는 알파벳+파닉스 노트 작성	주1회 아침시간을 이용해 알파벳과 파닉스 연계 학습을 위한 활동으로 2학기에 보충그룹의 수준별 학습으로 이용
		

▣ 영어의 감(Intuition)을 키우기 위한 Syllable Counting(음절 나누기)

음절(Syllable)이란, 하나의 모음을 포함하여 한 개체로 발음되는 소리의 최소단위이다. 영어에서 단어를 모음단위로 정확히 나누는 것은 듣고, 말하기뿐만 아니라 쓰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게 작용하며 영어 도입기부터 음절 단위로 분절하여 듣고 말하는 훈련은 어려운 단어를 만나도 스스로 음절을 나누어 쉽게 읽고 쓰게 하였다. 예를 들어 6. I have two tomatoes 단원의 필수 어휘인 banana와 tomato의 3음절 단어지도 시 '틀리게 발음하고 있는 오기능의 예를 먼저 제시⇒컬러스틱(Color Stick)으로 조작하여 읽어보게 함⇒정확한 음절과 강세의 교사시범⇒강세부채(Stress Fan)로 말하기 연습'의 순서로 익혀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감(Intuition)을 키워 나갔다.



▣ 앞으로의 모습

'Understand' 한 교육을 위해, 아이들이 서 있는 (stand)자리 아래에서(under) 아이들의 다양한 수준과 마음을 이해하는 눈높이 맞춤 교육으로 영어를 친밀한 언어로 느끼며 영어를 사용함에 어려움이 없는 우리 아이들을 기대한다.

새로움을 더하는 수학 수업 아이디어



홍 은 표
창원 호계중학교 교사

1. 발표와 토론 그리고 글쓰기

학생들이 새로운 탐구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은 탐구과정에서 자신이 발견한 지식과 해결 방안을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는 절대적 진리가 없는 과학 지식을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잠정적으로 결정하도록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적 합의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 중 하나가 토론과 글쓰기이므로 수업 과정에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남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토론과 글쓰기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수업 장면을 설계하고,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바람직한 질문들을 찾아내는 것은 수학 수업에 새로움을 더하는 아이디어가 될 것이며,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학생들의 생각에 합의하거나 반대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발표와 토론, 글쓰기를 위한 수업 사례〉

▷ 학년 및 단원 : 중2, 삼각형의 성질

▷ 학습목표 : 여러 가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종이접기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종이접기

시작 (10분)	발표할 준비하기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발표 및 토론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각형의 외심 삼각형의 내심
		정리(5분)

▷ 학습 과정(45분)

1.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삼각형의 외심, 내심 등을 원형종이를 접어서 만들고 표현해 본다.
2. 자신이 찾아낸 종이접기 방법을 발표한다.
3. 발표한 종이접기 방법이 적절한지 토론한다.

2. 수학 시간에도 나만의 작품을 만든다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포함하여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일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험은 단지 수학이 계산과 문제 풀이에만 있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원이나 도형의 학습이 끝난 후에 시도하기가 좋는데 예를 들면, 원과 직선을 이용한 만다라 그리기, 다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테셀레이션 만들기, 합동과 닮음을 이용한 패턴디자인 만들기 등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활동들은 단원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으며 평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창의성, 과제를 대하는 태도, 도형의 성질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능력 등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수학 시간에 만드는 작품은 의도에 따라 회화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는 있으나 가급적 엄격한 작도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당하게 어렵잡아 그려낸 정사각형이 아니라 각도와 길이를 측정하여 그리거나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 작도하도록 한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배운 수학적 내용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 때 교사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명시해 주고, 그것들이 각 학생들의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됨을 알려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만든 작품은 교사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들에게도 평가를 받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설계한다면 보다 더 새로움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도형의 합동, 닮음, 평행이동, 회전이동 등을 이용한 패턴디자인 수업〉

<p>▷ 학년 및 단원 : 중2, 도형의 닮음</p> <p>▷ 학습목표 : 도형의 합동과 닮음, 평행이동, 회전이동 등을 이용해 패턴디자인을 만든다.</p>	
<p>▷ 학습 과정(3차시)</p> <p>1차시 : 주제 선정 및 스케치</p> <p>2차시 : 밑그림 그리기 및 채색하기</p> <p>3차시 : 평가하기</p>	<p>▷ 평가기준</p> <p>- 도형의 합동, 닮음, 대칭이동, 평행이동, 회전이동, 다각형 등과 같은 수학적 요소 포함한다.</p> <p>- 창의적이고 아름다워야 한다.</p>

보고 듣고 만지며 알아가는 재미있는 수학놀이



신 승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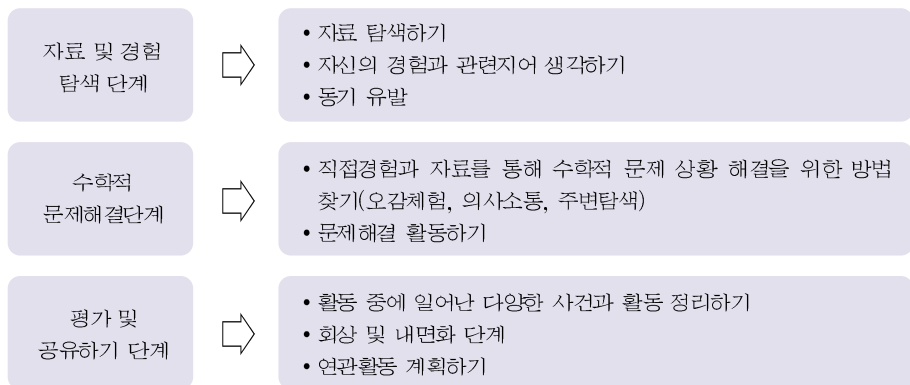
거제국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1. 통합적 수학놀이란?

수학과 유아의 일상생활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물건을 서로 나누거나 놀이의 순서를 정하기, 친구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악기를 두드리면서 소리의 강도와 리듬을 몸으로 체험하기 등 수학적 상황은 어떤 특정한 장면이나 시간이 아닌 유아의 일상생활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유아의 수학교육활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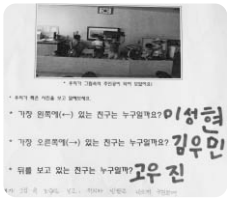
보고 듣고 만지는 수학놀이란 음악, 언어, 신체활동, 조형, 게임, 극놀이 등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수학적 상황을 경험해 보도록 전개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유아들의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통합적 활동이다.

2. 활동의 전개



3. 수업 적용의 예 : 그림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수학

- 활동명 : 장육진의 「나룻배」 그림 속 주인공 되어보기
- 활동목표 : 그림 속 사람들의 위치, 방향, 순서에 대해 인지한다.
그림 속 주인공이 되어 위치, 방향, 순서에 맞게 서 본다.
- 수학적 관련요소 : 위치와 방향알기

단계	활동내용	활동 모습
자료 및 경험 탐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에는 누가 타고 있나요? • 그림 속 인물들의 위치, 방향, 순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어디를 보고 있나요? 	
수학적 문제해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속 주인공이 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처럼 표현하려면 몇 명이 필요할까요? - 무엇이 필요할까요? • 역할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 의논하여 역할 정하기 - 모듈별 표현할 순서를 정하기 • 사진 속 주인공이 되어 표현하기 • 그림과 같은 사진 찍기 	
평가 및 공유하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사진을 보며 평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모듈이 가장 잘 표현한 것 같나요? - 바나나팀의 맨 왼쪽에는 누가 있나요? ※ 후속 활동(활동지) • 사진 보며 위치와 방향에 맞는 친구의 이름 적기 	

4. 활동의 효과

- 보고 듣고 만져보는 수학놀이는 유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수학을 느끼게 하여 수학에 대한 흥미와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였다.
- 다양한 형태의 유아 중심 수학적 통합 활동을 통해 수학적 문제해결력의 향상을 가져 왔다.
- 몇 차례의 수업 공개와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등으로 학부모들에게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유치원 교육방법을 보여주어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효성그룹, 교육기부를 통해 경남교육 발전을 지원한다

우리나라 섬유 산업을 선도하는 효성그룹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과 경남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교육기부에 적극 나선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효성그룹(부회장 이상운),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12월 19일(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에서 이주호 장관, 이상운 부회장, 고영진 교육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효성그룹은 섬유, 중공업, 산업자재, 화학, 건설, 무역, 정보통신 부문 등의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으로서 글로벌 네트워크, 계열사별 전문성과 우수 인력, 시설, 진취적 마인드 등 기업의 핵심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기부에 동참한다.

효성그룹이 추진할 교육기부 계획의 주요 내용

- **[경남지역 교육발전]** 효성그룹은 전국 단위의 교육기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경남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진로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채용과 연계하며,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효성그룹의 뛰어난 기술을 활용한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홍보관 등을 활용한 ‘과학체험 프로그램’, ‘환경과 녹색성장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 **[소외·낙후지역 학생 교육 지원]** 지역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1사 1교 후원’, ‘방학 및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장애학생 체험학습 지원’, ‘장학 지원’, ‘도서 지원’ 등을 실시한다.

국제교육개발 협력 현황과 과제



구 현 숙

창원 대원초등학교 교사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2010년 11월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2011년 11월 OECD DAC가 개최하는 부산국제개발원조총회(HLF-4)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지도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원조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국제개발협력(ODA) 확대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양적 규모를 늘려 나가고 있다.

1. 교육 ODA 추이

〈표 1〉에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액은 매년 증가추세이다. 2010년 우리나라 총국민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의 비중은 0.12%이다. 이것은 2006년을 제외하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OECD DAC국가들의 평균치인 0.3%와 권고기준인 0.7%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2015년까지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의 비중을 0.25% 까지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표 1〉 우리나라 ODA 추이

(단위 : US달러, 백만)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적개발원조 (ODA)	264.7	278.8	365.9	423.3	752.3	455.3	699.1	802.3	816.1	1167.7
① 양자협력	171.5	206.8	245.2	330.8	463.3	376.1	437.5	539.2	581.1	890.6
- 무상원조	53	66.7	145.5	212.1	318	259	361.3	368.7	367	566.8
- 유상원조	118.6	140.1	99.7	118.7	145.3	117.1	132.2	170.6	214.1	323.7
② 다자협력	93.1	72	120.7	92.6	289	79.2	205.6	263.1	234.9	214.1
ODA/GNI(%)	0.06	0.06	0.06	0.06	0.1	0.05	0.07	0.09	0.1	0.12

※ 출처 : ODA Korea, 2010 참조

우리나라의 무상에 의한 공적개발원조의 지역별 배분추이를 <표2>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ODA는 2000년대 전반기에 아시아지역을 중시하던 추세에서 2010년에는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유엔이 제시한 천년개발목표(MDGs)와 유네스코가 설정한 만인을 위한 교육(EFA)의 성취정도가 매우 저급한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대한 개발협력 증대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표 2> 무상원조의 지역별 비중추이(%)

지역/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아시아	46.8	47.6	40.4	35.0	32.9	37.2	32.7	39.7	40.0	54.0
아프리카	8.5	14.8	6.5	8.0	7.5	12.1	15.7	19.8	19.1	14.9
중남미	5.7	12.3	5.4	4.9	5.7	7.2	13.2	11.6	10.2	10.6
중동	1.0	2.1	34.0	39.0	37.1	28.3	21.6	5.7	6.6	5.3
동구 및 CIS	10.8	7.8	4.1	3.6	4.4	3.6	2.8	5.9	6.8	4.7
국제기구	9.9	0.8	0.8	0.5	3.9	0.6	4.1	8.9	8.2	4.1
기타	17.2	14.6	8.8	9.1	8.5	11.0	9.9	8.4	9.1	6.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 <http://stat.koica.go.kr/>

2. 우리나라의 국제교육협력의 특성

첫째, 교재개발 및 개도국 교육정책역량 개발을 지원하였다. 즉, 한국교육의 발전경험 공유를 위한 개도국에 대한 콘텐츠개발, 컨설팅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하고 교육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둘째, 아프리카 교육개발을 시행하였다. 더 나은 아프리카를 재건하기 위하여 교육발전사업(Better Education for African Recovery; BEAR)을 교과부는 유네스코 본부와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는 MDGs 및 EFA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국별 교육협력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교육과학기술부는 OECD 등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LF-4) 연계 부대행사를 개최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OECD는 물론 국제기구와 함께 교육ODA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思考몽치 가득한 우리 학교 책마루’ 교과부 선정 학교독서교육대상의 영예로움으로 칭찬받다.



신 경 자
창원 삼계초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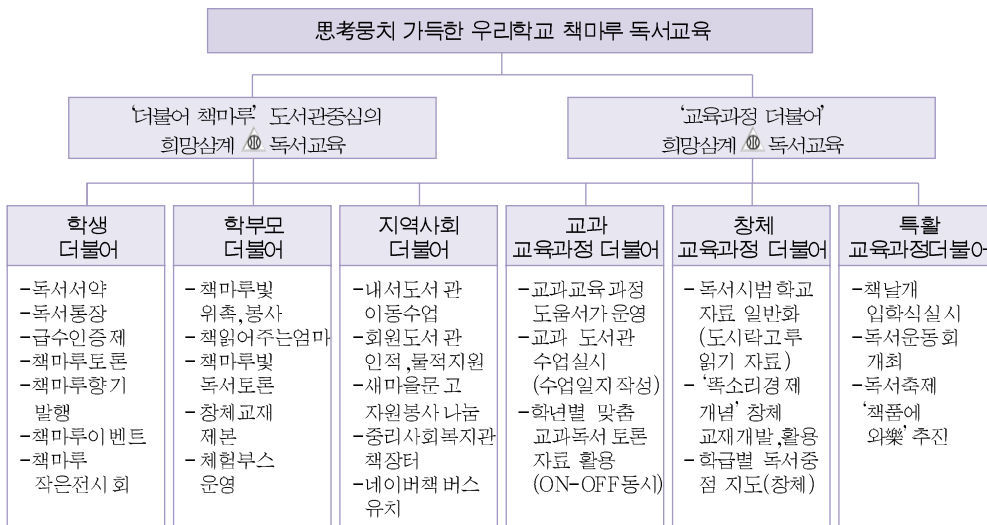
‘책과 함께 하는 교육희망 1번지’

책 읽는 학교에의 의지를 담은 우리학교의 타이틀처럼 2011학년 한 해동안 책과 함께 놓고, 공부하고 즐겼던 과정들이 제1회 경남독서문화축제 체험부스 운영 지정, 도교육청 선정 독서교육 최우수학교, 교과부 선정 제1회 학교독서교육대상 수상 결과로 한가득 칭찬 받았습니다.

비단 울 한 해동안의 활동이 아닌, 독서교육을 특색교육활동으로 선정, 벌써 6년째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내용들이 드디어 올해 꽃 피우고 열매 맺은 것이지요.

그 씨 뿌리고 거름주며 아이들의 사고력열매를 키워 온 수줍은 우리들의 이야기, 같이 들어 보실래요?

1. 삼계초등학교만의 특화된 독서교육 열개



2. 삼계초등학교만의 특화된 독서교육 실천 모습

가. 더불어 책마루 도서관중심의 희망삼계 ㉮ 독서교육 / 학생 더불어



나. 더불어 책마루 도서관중심의 희망삼계 ㉮ 독서교육 / 학부모 더불어



다. 더불어 책마루 도서관중심의 희망삼계 ㉮ 독서교육 / 지역사회 더불어



라. 교육과정 더불어 희망삼계 ㉮ 독서교육



3. 삼계초등학교만의 특화된 독서교육, 내일을 꿈꾸다

2011학년, 가장 유익했던 교육활동으로 학생 29%, 학부모 37.62%, 교사 35.84%가 '우리학교만의 독서교육'을 꼽았습니다. 갖가지 대화에서 거둔 상장과 표창이 쌓여갈수록, 다른 학교에서 우리학교의 독서교육을 보배우기 위해 찾아움이 잦아질수록 비례해서 무거워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단지 그 책임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행동으로 앞장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학교의 노력은 언제나 현재진행형일 것입니다.

감성교육으로 행복한 배움터 가꾸기



하 옥 진

창원 대원초등학교 교장

1. 감성교육으로 행복 펼치기

소셜네트워크 미디어 발달과 입시 위주, 학력 위주 교육으로 학생들의 감성은 점차 메말라지고 있다. 본교는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학력 또한 인근 학교에 비하여 낮은 편이나 학부모의 교육적 열의는 어느 학교 못지않게 높다. 이러한 교육적 열의는 방과후 사교육 시장, 특히 교과 학습을 위주로 하는 공부방에서 충당하려다 보니 주입식 교육, 학력 중시 풍토가 짙어졌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인성 교육’ 과는 다소 거리가 먼 교육활동이 전개되어 학생들의 행복감 또한 줄어드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의 학생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나 타인과 절충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삭막해진 아이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노래하는 학교, 고운 심성을 기르는 감성교육’을 전개하였다.

2. 감성교육으로 행복 찾아가기

가. 이런 꿈을 안고

노래의 생활화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 속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덕체가 조화로운 학생을 기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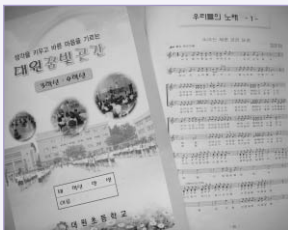
- 1) 음악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더불어 ‘노래하는 학교’를 운영하였다.
- 2) ‘노래하는 학교’ 운영을 통하여 맑고 고운 심성이 형성되도록 전개하였다.
- 3) 전학생이 노래 부르기에 참여하고 음악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여 풍부한 음악적 표현 및 음악적 경험을 통해 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 4) 음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심어주며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기르고자 하였다.

나. 이렇게 실천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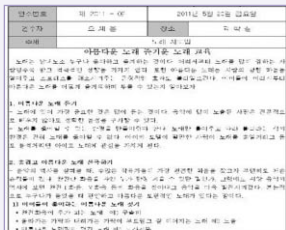
- 1) ‘대원의 아름다운 노래’ 선정

- 가) 저, 중, 고학년으로 나누어 어린이 발달 단계에 적합한 노래 10곡 선정
 - 나) 계절, 가정, 통일, 친구, 민족 등 10가지 주제에 따라 노래 선정 및 ‘대원 꿈빛곳간’ 학습장에 노래 수록
 - 다) 아침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맑고 고운 노래 부르기 활동 전개
 - 라) 민주시민교육, 효행교육, 시사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연계되도록 전개
 - 마) 교사를 대상으로 한 노래 부르기 지도 방법 연수 실시
- 2) ‘아름다운 대원의 날’ 지정 운영
- 가) 매월 첫째, 다섯째 주 토요일 아침 활동 시간 활용
 - 나) 음악의 다양성과 아름다움 및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함
- 3)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대회 실시
- 가) ‘대원의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활성화 방안으로 6월, 12월 2회 실시
 - 나) 지정곡 1곡과 자유곡 1곡 선정하여 전학급, 전학생 참여
 - 다) 맑고 고운 심성 함양 및 노래가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

대원꿈빛곳간



교사 연수



노래부르기 대회



4) 음악 동아리반 운영 및 문화예술강사 지원 수업

프로그램명		지도 내용	운영 요일	지도교사
정규 교육과정	합주부	음악적 표현능력 신장 및 소질 계발	토요일	교사 주도수업
	리코더부			
	국악교실	국악 맛보기 및 표현 능력 신장 (5, 6학년 150시간 지원)	해당요일	문화예술 강사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플룻교실	음악적 표현능력 신장 및 소질 계발	월, 수	외부강사 주도수업
	바이올린교실		화, 목	
	드럼교실		월, 수	

5) 음악으로 여는 아침

- 가) 아침 등교시간에 방송을 통하여 학교 전체에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게 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 조성

나) 동요, 건전가요,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하게 하여 정서적 안정감 느끼게 하고 감성 함양

다) 요일별 음악 청취 프로그램

요일	주 제	분 야
월	마음의 평온을 찾아주는 클래식	클래식
화	맑고 고운 창작동요	동요
수	기분이 좋아지는 클래식	클래식
목	우리 가락 국악동요	동요
금	아름다운 우리 가요	건전 가요
토	아름다운 대원의 날	대원의 아름다운 노래 부르기

3. 행복 반올림 감성교육 열매 거두기

감성교육 전개는 삭막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전인을 양성하는 교육,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며 성과는 다음과 같다.

가. 노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맑고 고운 노래가 학교에 울려 퍼져 행복한 학교생활, 즐거운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나. 음악성 계발, 창의성 계발, 음악적 정서의 함양을 통해 고운 심성을 길러주며 전인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

다.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및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함께 친구를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생활 태도를 길러 우리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바꾸어가고 있다.



전통문화체험에 꿈이 열리고



이 무 경
창원 안남초등학교 교장

1. 창원문화 사랑을 기본으로 한 문창제 놀이의 전수 배경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나 휴대폰을 더 좋아하는 시대다. 본교는 아이들에게 전통 문화를 사랑하게 하여 잊혀져가는 우리의 문화를 배우고 사랑하며 창원문화를 바로 알고 체험하기 위해 1~5학년은 창원안내자료 학습 및 창원문화유적 탐구 및 탐방으로, 6학년은 창원문화 사랑을 기본 바탕으로 무형문화제인 문창제 놀이를 직접 시연해 봄으로써 조상의 얼과 지역의 역사가 깃든 전통 문화의 전승에 주안점을 두었다.

문창제 놀이는 병자호란 때 순절한 충신 황시헌(黃是憲)을 추모하는 민속놀이로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체 4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과장은 제향(祭享)으로 황공의 위패를 세우고 제물을 진설하여 제례하는 내용이고,

제2과장은 추도무(追悼舞)로 기녀들이 추도무를 추며 황공의 넋을 위로하며,

제3과장은 군노 놀이로 황공이 순절할 때의 상황을 극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제4과장은 매귀굿으로 온마을 사람들이 한 데 어울려 놀며 황공의 명복을 빌며 풍물을 울리는 판굿으로 예능 위주의 일반적인 민속놀이와는 달리 충신을 기리는 놀이이다.

본교에서는 더 정확한 재현을 위해 문창제 보존회의 지도하에 문창제 전승반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계승이 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역사 의식과 향토사랑 정신을 고취하며 문창제 놀이 공연 등의 활동으로 자아실현의 기회 및 충효사상을 키우는 데 그 배경을 두고 있다.



2. 우리고장 창원의 문화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창원은 다양한 문화재, 천연기념물을 비롯해 보물, 사찰 등이 많이 있으며 문화 예술에 대한 의식이 높은 편이다. 안남교육과정 중점구현계획 속에 ‘창원사랑의 정신 고취’가 포함하여 이러한 문화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였다. 전교생이 창원을 바로 알고 창원의 문화 유적 탐구 및 탐방, 체험을 통한 창원사랑 정신 함양에 중

점을 두었고, 6학년의 문창제 시연을 통해 완성하게 하였다. 본교 교사들은 맞춤형 창원안내자료 및 학습자료 구안 적용 및 문창제 놀이 직접 시연을 통해 창원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였다.

3. 이렇게 추진했어요

가. 창원안내 자료를 통한 창원 바로 알기

맞춤형 창원안내 자료 구안 적용	창원을 소개하는 복도 환경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원 사랑학습자료 21종 - 창원 사랑학습지 50여 종 - 교과 및 관련자료를 통한 창원문화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이 아름다운 우리고장 창원 - 창원의 상징, 옛 모습, 명소, 축제
 <p>(창원사랑 학습자료 및 학습지)</p>	 <p>(창원을 소개하는 복도 환경 구성)</p>

나. 창원의 문화 유적 탐구 및 탐방

교육과정 과 연계한 문화체험 활동 및 현장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과 연계한 문화체험활동 활성화(창원의 문화 예술 체험 권장) -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학습
 <p>(교육과정 및 가정과 연계한 현장학습 및 문화체험활동)</p>

다. 문창제 놀이 체험을 통한 창원사랑 정신 함양

문창제 놀이 직·간접 체험으로 창원사랑 정신 함양
<p>※ 1~5학년 문창제 관련 자료 영상을 통해 의의 및 창원사랑 정신 고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시헌 공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기(저학년) - 황시헌 공에 대해 조사학습하기(고학년) - 문창제의 역사 및 의의 알아보기 - 문창제 동영상 감상 후 느낀점 발표해 보기 - 창원사랑학습지 해보기

- ※ 6학년 문창제 놀이 시연하기(안남어울림 축제 한마당)
- 문창제 보존회의 지도(설수석 강사 2011.4.15.~7.23. 주2~3시간)
 - 문창제 놀이의 유래, 문창제 놀이의 구성, 과장별 내용 익히기
 - 문창제 놀이 감상 후 창의적 표현활동 하기
 - 문창제 놀이 제3과장 군노놀이 체험
 - 안남어울림축제한마당에 문창제 놀이 제3과장 군노놀이 공연



(문창제 놀이 직·간접체험 모습)

4. 문창제 놀이를 통해 지역 문화를 전승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며

만국기가 펼쳐지는 본교 어울림마당 축제엔 조선 인조 14년(1636) 병자호란 때 순절한 충신 황시헌(黃是憲) 공을 추모하는 6학년 아이들의 문창제 놀이로 10년째 봉림산을 붉게 물들이는 높은 함성이 일고 있다. 본교에서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안남어울림마당(운동회)과는 달리 창원 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창제 놀이 시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조상의 얼과 지역의 역사가 깃든 전통 문화(문창제 놀이)의 전승에 기여하고 역사의식과 향토사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본교 아이들에게 우리 창원의 문화재를 직접 배우고 시연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본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도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본다.

5. 안남초 교정에 꿈 하나 더 열고.....

우리 전통문화의 직·간접체험을 통하여 아이들의 가슴엔 우리고장의 문화재를 보존해야겠다는 애향심이 가득 채워져 우리지역 문화 예술에 대한 자긍심 및 조상의 얼을 이어받고 우리 문화재를 널리 홍보할 미래의 또다른 꿈 하나를 열고 있다. 특히 창원사랑학습지를 통해 고장의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며 가족과 친구들, 이웃과 함께하며 서로 돕고 어울려야 함을 배워 안남의 기둥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교정을 꾸밀거라 기대한다. 오늘도 안남초등학교의 교정에 꿈 하나가 더 열리고 있다.

가(歌) · 무(舞) · 악(樂)이 조화된 UNESCO 등재 문화재 가곡교실 운영



이 정 희

창원 마산상남초등학교 교장

1. 가곡교실 운영의 필요성

급속한 도심 공동화 현상과 주위의 생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책읽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노래하는 학교’라는 시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교에서는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돕고 조화로운 품성을 갖춘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지금의 학교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규수업 이외의 다양한 경험이나 전문적 국악교육의 필요성을 어떤 교육과정보다도 더욱 중요한 의미로 강조하게 되었다.

2. 가곡교실 추진 목적

가. 가곡 교실 운영을 통하여 소질과 적성에 맞는 취미 활동을 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정서를 풍부하게 한다.

나. 전통 무용 연수를 통하여 우리 가락의 신명과 흥을 느끼고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우리 악기를 아끼는 마음을 갖는다.




다. 풍물부 운영으로 국악의 초보적인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특성을 이해하여 우리 조상의 슬기를 알고 우리 문화를 아끼는 태도를 기른다.

라. 우리 전통 가곡이 UNESCO 등재 무형문화재임을 알고 유네스코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문화재를 아끼는 마음을 가진다.



마.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급격한 학생수 감소와 빈민층의 증가로 문화적 혜택이 적은 학생, 학부모, 지역민을 위한 국악공연으로 문화적 혜택을 준다.

3. 가곡교실 운영 방법

가. 찾아가는 국악 공연 · 우리 무용 바로 알기

		
가곡전수관 국악교실	경남 주립 국악단 국악교실	전통무용교실
<p>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국악 단체의 찾아가는 국악공연(2회) 및 우리 춤사위를 바로 배우는 체험을 통해 우리 기락에 베어 있는 신명과 흥을 느끼고 전통악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며 한국 무용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p>		



나. 문화재 전수학교 운영

		
학생 가곡교실	학부모 가곡교실	교직원 가곡교실
<p>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인 가곡 전수학교(5학년) 및 학부모 · 교사 가곡교실을 운영하여 가곡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느끼게 하였다.</p>		

다. 국악체험활동과 연계한 상남기네스 및 국악실적발표

	
2011 학교교육과정 실적 발표회 [2학년 풍물발표]	2011 학교교육과정 실적 발표회 [가곡발표]
<p>2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상남기네스 대회에 민속놀이 및 국악체험활동과 연계된 종목(노래메들리, 악기연주 등)을 삽입 운영하였으며, 그동안 배운 우리 춤사위, 풍물놀이, 가곡 전수학교 발표를 통해 국악의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p>	

라. 한국 최초의 UNESCO코너 설치 도서관 개관과 활용

	
<p>도서관 개관식(테이프 커팅식)</p>	<p>유네스코 갤러리</p>
<p>본교 가곡교실과 연계하여 학교도서관에 '한국유네스코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유네스코가 하는 일,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재를 세계문화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분류하였고, 한국유네스코 갤러리, 유네스코 도서관코너, 본교의 특성화활동 코너, 유네스코 검색대 등을 설치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지역민도 이용할 수 있는 한국에서 최초의 테마가 있는 유네스코 코너를 마련하였다.</p>	

4. 운영 효과

가, 무, 악이 조화된 국악 체험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

가. 한국의 UNESCO에 등재된 문화를 알고 우리학교에서 실시하는 가곡부르기를 생활화하여 고운 심성을 기르려고 노력하였다.

나. 서양음악에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국악의 전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악에 대한 이해와 선호도, 지식과 기능의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다. 본교의 전통이던 풍물 중심의 특색 교육활동을 한 단계 확대하여 국악의 전 영역에 대한 교육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국악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되었다.

라.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도 국악교육의 질적 향상을 끌어냈고 이를 통하여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었다.

마. 우리 음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으며 우리노래 속의 슬기로움과 협동심, 고운 심성을 기르게 되었다.



노래교실 운영을 통한 즐거운 학교 -학교 가득한 아이들 노래 소리-



허 기 업
창원 장천초등학교 교장

동네 여기저기, 골목길을 누비며 우리의 동요를 즐거이 부르던 예전 모습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방과후학교, 학원을 찾아가기 바쁘고 이런 여건 속에 아이들의 웃음, 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듣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요즘 아이들의 놀이 문화는 예전과 많이 달라 반주에 맞춰 노래하는 노래방 세대 아이들이다. 하지만 지금의 초등학생들이 노래방을 찾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 이에 본교에서는 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되찾고 아이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래교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1. 기본 환경 조성

본교는 30학급 규모로 지어진 학교이나 아직 학급이 다 차지 않아 유휴교실이 많이 있다. 이런 교실을 이용하여 창문이 있는 양쪽 벽에는 두터운 커튼을 달아 햇빛을 적절히 차단하여 노래교실만의 아늑한 공간 연출과 다른 교실의 소음 관계를 해결하였다. 교실 앞쪽에 있는 칠판을 떼어내고 대형 TV, TV와 연결된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색과 곡선, 원의 형태로 이루어진 예쁘고 아늑한 소파를 놓아 아이들이 즐겁게 노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래책이 한 권 밖에 없어 아이들이 노래를 선곡할 때 불편함을 덜고 우리 동요를 많이 불러보자는 취지로 TV 양옆에는 저학년용, 고학년용 동요가 선곡되어 게시되어 있다. 뒷면 게시판에는 노래를 잘 부르는 방법, 노래교실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게시되어 아이들이 자발적이고 즐겁게 노래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01



02



01, 02 기본 환경조성

저학년 추천 동요

가을바람	63044	벌아벌아꽃피랴	63023
고기잡이	1614	비행기	63084
공 세 마리	5566	산중호걸	60131
구슬비	1618	새싹들이다	4444
귀여운 꼬마	2820	설날	1020
꼬까신	63113	숫자총	64155
고마운사람	82059	시계	63098
고부랑 할대니	82063	아기염소	4049
곡죽 숨어라	63022	아기다람쥐또미	82355
남생아놀아라	63001	아빠 흰내세요	68587
노래는 즐겁다	1622	어린이음악대	1635
덕석물기	63027	옥수수하모니카	63101
도토리	82148	울렁이와 개구리	68071
독도는 우리땅	286	종달새	601
동물농장	1409	우유송	64154
두꺼비	63087	칭글별	697
동개동개들개아	63031	참 좋은말	81835
독감아요	63086	창밖을 보라	703
리자로 끝나는 말은	63095	풍당풍당	4614
바둑이방울	4379	햇별은 쟁쟁	4627

고학년 추천 동요

가을길	63108	바닷가에서	4378
가을맞이	1612	바람개비	4381
강강술래	63110	바람새	4655
개구리소리	63077	방울꽃	4387
거문도 뱃노래	63080	방울새	63106
겨울나무	63129	산바람강바람	1017
고사리떡차	63126	삼겹자기	2649
고향땅	1003	솔솔을 곁어요	1634
과수원길	152	스승의 은혜	63127
금강산	60102	어린이 노래	63118
기차를 타고	63066	어머님 은혜	1025
꽃밭에서	146	얼굴피우리지말아요	64490
꽃밭의 여행	4257	오빠생각	597
나뭇잎 배	60104	우리의 소원	607
내잎들로버	63073	종달새의 하루	60113
노랫송이	1624	총이비행기	63055
닐리리아	63120	천안삼거리	63107
들대지기	82168	초록바다	1035
맑은물줄기	63068	파란마음하얀마음	747
모두모두자란다	1013	하늘나라동화	4021

노래 교실 이용하기

다음의 일반적인 규칙을 지침으로써, 즐거운 노래 교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한 사람이 한국적 돌아 가며 부릅니다.
2.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를 때 잘 들어줍니다.
3. 노래를 부르는 동안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춤이나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4. 같이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후에 피어를 주지 않고 부릅니다.
5. 노래교실 안에서 지나치게 옮겨 다니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6. 노래 교실을 이용한 후 책과 마이크 등 정리정돈을 잘 합니다.
7. 노래 교실 환경과 책, 기계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즐겁게 잘부르는 법

1. 음정과 박자를 신경써서 맞춰 부릅니다.
2. 가사와 노래의 분위기를 살려 부릅니다.
3. 목청을 높여 부르면 목이 아프므로 배의 힘을 이용해 노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목이 아프면 물을 자주 마셔 성대를 보호해 줍니다.
5. 친구가 노래할 때 조용히 따라 부르면 목이 많이 풀려 노래를 할 때 잘 할 수 있습니다.
6.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고 신나게 노래를 합니다.

2. 운영현황

가. 교사 및 학생의 역할

교사는 노래 교실 이용에 있어 기기 사용법이나 안전규칙 등을 사전에 지도하도록 한다. 학생은 기기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파손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기기 및 책 사용 후 제자리에 두어 깨끗이 정리정돈을 하도록 한다.

나. 노래 교실 시간 운영

교시	요일	월	화	수	목	금
1						
2		2-3	1-3	1-2	2-1	2-2
3		1-1	3-1	5-1	4-1	6-1
4				5-2	4-2	
5		3-2	6-2			
6						

※ 이 시간표를 기본으로 하되, 다른 학반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융통성있게 사용이 가능하며 저학년들은 담임 선생님과 함께, 고학년은 방과후 시간에 자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다. 노래 교실 활용 모습



3. 노래 교실 활용 효과

교실에서 즐거운 생활시간, 음악 시간에만 하던 노래부르기 활동을 노래교실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다.

가.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나. 친구들과 함께 노래 부르며 즐기는 시간을 통해 친구들의 숨은 노래 실력도 알게 되고 칭찬해주는 분위기를 가지게 됨으로써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 고학년의 경우 학년 특성상 노래 부르는 것을 싫어하고 부끄러워 하여 교사도 학생도 음악시간이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노래교실 방을 활용하며 노래 부르는 시간이 즐겁게 느껴지게 되었다.

라. 기존의 노래방에는 가요 위주로 곡이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었지만 본교의 노래 교실에는 다양한 동요가 있어 교육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4. 남은 과제

학생들에게 노래교실의 지속적인 홍보 및 사용을 권장하고 사용 범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창작동요나 건전가요, 최신 가요 등을 2~3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연결하게 하는 것도 관건이다.

연극을 통한 또 다른 자신 찾기



정 태 식
거창 위천초등학교 교장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본교는 경남 서북부 거창군 위천면에 위치한 학교로 매년 여름 관내 위천 수송대 일원에서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리고 있어 지역민의 문화적 수준이 높은 곳이다. 또한 연극과 관련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문화 체험학습의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에 본교의 특성화 교육활동 주제를 '연극을 통한 또 다른 자신 찾기'로 설정하고 '무대 위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연극을 지도하였다.

2. 운영 과정

가. 연극지도

연극지도를 위해 1~2학년은 창의적체험활동에 연간 45시간, 3~6학년은 기본교과인 국어시간, 재량활동시간 등을 이용하여 연간 30시간을 배당하였다. 그리고 주 1회 문화예술진흥원의 강사풀제 운영에 의거 본교에 출강하는 연극강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별로 연간지도계획을 작성하고, 교사, 지역자원, 강사풀제 강사가 협력하여 연극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활동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하였다.

나. 수업역량 강화 연수

본교 교사들은 연극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를 주 1회로 하였으며, 매월 연극 이론 1회, 연극관련 수업적용 방안 1회, 실기연수 등을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파견된 전문연극인에게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연극 놀이의 연수를 받았으며,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리는 기간에 실시되는 거창군교육청의 '지역특성맞춤연수'인 교사연극연수에 해마다 1명 이상의 본교 교사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참가하여 교육연극에 도움을 얻고 있다.

다. 각종 행사 참가

본교는 모든 행사에 전교생 85명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능이 뛰어난 몇몇 학생들만 참가하는 행사가 아니라 전교생 모두가 참여하여 행사를 운영하였다. 본교의 학생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함께’ 하는 행사 운영으로 학생들의 마음속에 의미 있는 추억을 새겨주었으며, 학생들은 연극을 관람하고, 연습하며 배우는 과정에서 ‘경쟁’이 아닌 ‘협동’을 배웠다.

1) 신나는 예술여행, 마당극 ‘훨훨 간다.’ 관람

학생들에게 그동안 배운 연극을 몸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교생은 2011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마당극 ‘훨훨 간다.’를 7월 16일 강당에서 관람하였다. 학생들은 마당극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출연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또한 마당극을 통해서 말로 하는 이야기에 대한 맛과 흥미를 발견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2) 한여름 밤 사제동행 연극 보는 날 운영

8월 3일 오후 8시에 거창국제연극제 및 모교 선배님이 제공해 주신 티켓으로 전교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리고 있는 위천 수송대 거북극장에서 마당극패 우금치의 신명나는 마당극 ‘할머니가 들려주는 우리 신화 이야기’를 관람하였다. 학생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대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거창 국제연극제 축제 본연의 열정과 생명력, 그리고 상상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높고, 넓으며, 또한 깊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렀고, 연극을 통해 또 다른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우리 모두가 주인공! 제15회 경남어린이 연극페스티벌 참가

5~6학년 30명은 11월 2일 제15회 경남어린이 연극페스티벌에 참가해 함양학생공연장에서 백설 공주를 공연하였다. 특히, 이번 작품은 선정된 몇 명의 학생만 참여하는 공연이 아닌 30명 모두가 주인공이 된 연극 공연이었다. 이렇게 본교는 배움이 있는 공연준비 과정과 모두가 주인공이 된 작품을 만들어내면서 한국예총함양지부에서 수여하는 협동표현부문 단체상을 수상하였고, 개인상으로는 경남교육연극교과교육연극회에서 수여하는 연기상을 수상하였다.

4) 2011. 위천 꿈나무 연극 발표회 실시

11월 30일 저녁 6시부터 본교 강당에서 부모님과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위천 꿈나무 연극발표회’를 실시하였다. 교내 연극발표회는 전교생 모두가 참가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연으로 더욱 빛나는 무대가 되었으며, 일년 동안의 교육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뜻있는 행사였다. 또한 교육가족들에게 교육활동을 공개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01



02



01 마당극 ‘훨훨 간다’ 관람
02 한여름 밤 사제동행 연극 보는 날

5) 거창겨울연극제 참가

12월 16일 거창연극학교에서 열린 제19회 거창겨울연극제에 전교생 86명이 참가하였다.

1학년 학생들은 사람과 동물이 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인 ‘숲속의 심판’을 공연하였으며, 2학년 학생들의 ‘베짱이의 기타’를 공연하였다. 그리고 3~4학년 학생들은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로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미녀와 야수’를 공연하였고, 5~6학년 학생들은 ‘백설공주’를 공연하였다.

제19회 거창겨울연극제는 지역의 대표적 문화 행사의 하나로 학생들은 연극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동시에 지역 사랑의 애향심도 고취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전교생 모두가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어 공연을 펼쳐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학생 개인별 잠재력을 살려 운영한 연극 특성화 교육활동이 오늘 행사로 더욱 빛이 났다.

3. 운영 성과

자기 스스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연극이다. 학생들은 연극을 통해 다양한 인물의 삶을 표현해 봄으로써 역지사지자세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였다.

첫째, 연극 및 다양한 수업기법의 활용은 교사들의 수업역량을 향상시켰으며, 학생들은 타인에 대한 이해심과 함께 자신감, 창의적인 표현능력이 향상되었다.

둘째, 다양한 연극 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의 학습력과 협동심이 향상되었고,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학교교육활동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들은 역지사지의 자세를 배우게 되었다.

셋째, 연극은 학생들에게 특기와 소질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한 정서함양과 표현 능력 및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었다.

4. 변화 모습

“선생님, 연극 재밌어요.”라는 학생들의 말처럼 아이들은 연극 속에서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만들며 긍정적으로 변화해가고 있었다.

‘연극을 통한 또 다른 자신 찾기’를 통해 학생들은 내면에 잠재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연극은 학생들에게 자신감 및 자기 표현력을 길러주는 활동이 되었으며, ‘나도 하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03



04



05



03 제15회 경남어린이연극페스티벌 참가

04 2011. 위천 꿈나무 연극 발표회 실시

05 제19회 거창 겨울연극제 참가

독서愛에 빠진 섬마을 ‘사랑도’



정성근

통영 사랑초등학교 교사

1. 문화소외 지역 섬마을

본교가 있는 사랑도는 고성만 내해에 위치한 면적 26.97km²의 작은 섬. 4개의 자연부락에 주민수가 1,736명(2010년말 현재)에 이르는 전형적인 어촌마을. 부지런한 영세어민 부녀자들은 마늘 등의 농작물 재배로 소득을 보태며 생계를 이어가므로 여가와 취미생활을 즐길 정신적 여유가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2000년 이후 전국적인 농·산·어촌지역의 출생률 감소 현상으로 급기야 2011학년도에는 전교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 각 마을의 문화센터역할을 담당 해온 분교場이 폐교되고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져 날로 심화 되는 문화소외 현상의 극복과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독서愛 키우기

가. 독서 가족의 저변확대

1) 아침 독서 교실 운영

본교에서는 2010학년 새 학기부터 ‘독서를 통해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켜 보자!’ 교육공동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도서관 이름을 공모하여 ‘글맛누리’로 바꾸고 넓고 한정된 장르의 장서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서적으로 구입하여 비치하였다. 방과 후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사서교사 역할을 부여하여 비교적 등교시간이 빠른 전교생들을 도서실로 모아 본·분교장 전교생 통합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목요일을 제외한 08:20부터 08:50까지(주5일) 아침 독서교실을 운영하였다. 전교생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출석으로 모은 스티커로 독서활동 모범 어린이를 월별로 선정하여 독서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을 시상하여 독서의욕을 북돋워 주었다.

이와 함께 도서관(글맛누리)을 지역민(학부모)에게 개방(09:00~16:00)하고 1인 2권에 한해 장서를 7일 간 대출하였고, 읽기 쉬운 소설류의 베스트셀러를

01



02



01 「책 읽는 학교 만들기」 출범식

02 「가족 독서의 날」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글맛누리」소식지로 도서 목록을 가정에 안내하여 자녀들이 대신 부모님이 읽을 책을 빌려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독서인구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2) 함께하며 행복 찾는 가족 독서의 날 운영

‘범 도민 책 읽기 운동’에 동참하여 지난 3월 18일 ‘책 읽는 학교 만들기 출범식’을 가지고 매주 화요일 19:30부터 21:00까지 동안 온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독서의 날을 운영하였다. 학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저녁 식사를 마친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학교 도서실에 함께 모여 다양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독서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과의 친목도모와 자녀교육의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가 확대되었고, 특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이 짙은 학부모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바람직한 변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가정에서는 자녀와 함께 자녀들의 ‘진로희망과 미래를 담은 독서훈’을 만들어 독서를 통한 자녀들의 바람직한 자기 성장과 진로탐색의 계기를 보여 주었다.

3) 작동적 원리 발견의 계기가 된 학교장의 도서 선물

지난 5월 4일 ‘북 데이’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의 책 읽는 모습을 통하여 자녀에게 독서 동기부여의 작동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전 학부모의 가정에 학부모 가정 도서목록과 함께 책(엄마를 부탁해/신경숙, 못 가 본 길이 아름답다/박완서 더)을 1권씩 선물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학교장의 책 선물에 감동을 받은 학부모들은 학교가 안내하는 독서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자녀들의 독서활동에 모범을 보이고 본교의 교육활동에 신뢰감을 나타내며 여타 교육활동에 대한 지지도가 향상되었다.

나. 독서앓이를 가꾸는 다양한 독서마당

1) 독서 한마당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다양한 독후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독서 생활을 습관화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4일부터 27일까지 학년별 교과 활동과 연계한 다양한<◎독후화 그리기(1~2학년) ◎책 광고지 만들기(3~4학년) ◎독서신문 만들기(5~6학년)>독서 행사를 전개하였다.

2) 학부모 독후감 쓰기 공모 대회 개최

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올바른 독서 습관의 본보기와 독서생활을 통한 바람직한 부모상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0월 중 2주간의 공모기간을 거쳐 학부모 독후감 쓰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대회에 응모한 작품 편수는 총 7편으로 기대 이상의 관심을 보여 주었으며 내용 수준 또한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 교양 수준을 상회하였다.

3. 독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큰 희망과 꿈'

본교의 독서활동은 점차 위축되는 섬 지역 학교 교육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학교교육공동체의 자구책이며, 교육·문화·환경이 낙후한 섬 지역 어린이들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찾는 자기 발견 교육이요, 미래의 자기 진로를 모색하는 정보 탐색' 교육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큰 희망과 꿈의 에너지의 원천이다. 그러기에 본교에서의 독서활동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단계적 발전을 지향하는 창조적이며 창의적인 교육활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본교가 추진한 독서교육 성과의 일면을 학부모의 입장에서 성찰해보고자 '학부모 독후감 공모' 우수작 원고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 가족독서사랑 모임을 통해 매주 화요일 저녁 시간에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 읽는 학교', '자녀와 함께 책을 읽자!' 라는 의도는 엄마인 나로 하여금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하는 분명한 이유를 주신 것 같습니다. (중략) 요즘 우리 주변에서도 조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다문화가정에서 힘들게 자라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부모의 정을 그리워하면서 상처받은 마음으로 반항하고 빛나가는 아이들도 종종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바마도 한때에는 자신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열등감에 빠지고 마약의 유혹에 빠지면서 사춘기를 힘들게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의 생각을 바꾸었을까요? 행동이 바뀌고 운명을 바꾼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 책에서는 사랑하는 손자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 주면서 곁에서 기다려주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 주신 외조부모님의 사랑과 철저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 학부모 독후감 공모전 <우수작: '오바마 이야기' .강경원 님>글 발췌 -



태평양을 마주하고 미국 학생과 소통하다



이 종 직

밀양여자고등학교 교사

1. 밀양여고 특색활동

밀양여고는 영어 표현 능력 향상과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세계 시민 육성을 목표로 학교 특색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용도 전용영어교실을 활용하여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어책 읽기(Extensive Reading) 및 영어 듣기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English Pop Festival, English Speech Contest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유네스코 협동학교로서 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교육과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 교실(CCAP)’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 오사카의 메이조 가쿠인(Meijo Gakuin) 고등학교와 재매 결연을 맺어 정기적으로 인적 교류를 하고 있다.







2. ‘Collaboration with Punahou School’ 프로젝트 개요

우리 학교 국제이해교육의 일환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모교인 Punahou School의 8학년 학생과 밀양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협업 프로젝트이다. 십대의 고민 (Teen Issue)이라는 주제로 공익광고(Public Service Announcement) 형식의 동영상을 만들어 웹블로그에 게시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3. Punahou School은?

2008년에 미국 제44대 대통령 Barack Obama를 배출한 하와이 주 최고의 명문 학교이다. 1841년에 설립되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수는 3200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립학교이다.

4. 협업 프로젝트의 추진 경과

일정	내용
9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Wo International Center에 근무하는 Terrina Wong 교사와 8학년 영어를 가르치는 Chase Mitsuda 교사의 협업 제안과 협업 약속
10월 2주~ 10월 3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학교 학생이 동시에 청소년 성장 소설인 Paul Fleischman의 'Whirligig'를 읽고, 동영상 기획의 활용서로 이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10월 4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Public Service Announcement (PSA)에 대한 조사 및 조별 발표 
10월 5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토리 보드 작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토리보드 작성 예시 및 스토리보드 템플릿 제시 지도교사의 조언을 참고하여 클럽 홈페이지에 게시 (club.cyworld.com/milyeogoER)
11월 1주 ~ 2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 촬영 및 편집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북산 체육공원과 학교 일원에서 조별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지도교사의 지도 및 조언
11월 3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별 작품 발표 및 최종 수정 
11월 4주~ 12월 1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후 Punahou School 학생과 의견 교환 [밀양여고 Web Blog] (http://www.milyeogo.hs.kr/index.jsp?SCODE=SOC00000790&mnu=M001012) [Punahou School Web Blog] (http://wiki.punahou.edu/groups/mydigitalwhirligig2011/blog/)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5. 프로젝트 추진 결과

우리학교는 41개의 동영상상을 제작하였으며, 이 중 17개의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미국 Punahou School은 60여 개의 작품을 제작하여 웹블로그에 올렸다. 각 학교 학생들은 각 블로그를 방문하여 약 400여 개의 댓글을 남기며 의견을 교환했다.

Hawaii

Great job conveying the message of how small gifts can brighten someone's day! I loved how you showed each person becoming affected by the first whirligig; I loved the clip where it showed the one whirligig joined by many others. Awesome video! (2011-11-29 04:39) [DEL](#)

Hawaii

Your video was so cute, I loved the little pinwheels, they were pretty to look at, I also liked that the message of the video was easy to understand. (2011-11-29 04:39) [DEL](#)

Hawaii

Nice job, the link to whirligig was very nice Amazing work (2011-11-29 04:39) [DEL](#)

Hawaii

I like the beginning part of the video. It emphasized a lot to me. (2011-11-29 04:39) [DEL](#)

Hawaii

The video had a great message and great show of how society is today. (2011-11-29 04:39) [DEL](#)

Hawaii

I thought the story was interesting, I thought all of the pin wheels together looked really cool, I also like how it is closely related to Whirligig. (2011-11-29 04:40) [DEL](#)

Hawaii

This video was really good, It showed how that one person can make a difference. It also showed how if you are always on your Ipod or Phone you can miss out on the cool things around you in nature. (2011-11-29 04:40) [DEL](#)

Hawaii

This video was so creative! I liked the scene where it showed all of the pinwheels together. The different points of view also added to the video, Awesome job! (2011-11-29 04:40) [DEL](#)

Hawaii

This video seemed very creative, and can be referenced to the real world, and there are many examples shown in the real world, that we can often see everyday like this video. (2011-11-29 04:40) [DEL](#)

Hawaii

I really enjoyed this video, I thought it was very creative and well thought out, I learned a very valuable lesson from this video. (2011-11-29 04:40) [DEL](#)

6. 기대 효과

학생들이 진정성 있는(Authentic)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영어 표현 능력을 극대화하였고, 이를 토대로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함양할 수 있었다. 또한 타문화권 학생과 교류하며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페이스북의 특성과 활용법 1

- 페이스북 가입하기 -



최재용

한국소셜미디어교육원 원장

1. 페이스북이란?

페이스북은 미국의 Facebook사에서 지난 2004년부터 제공하는 전세계 7억8천만명의 활발한 사용자가 사용 중인 전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서, 우리나라의 싸이월드와 비슷한 관계 중심의 인맥형성 서비스이다.

페이스북 사용자 7억7천만명은 세계인구 2위국인 인도의 12억명에 근접한 숫자로 인구수 국가로 따지자면 세계 3위권의 인구수를 가진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 페이스북이다. 많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지만 페이스북처럼 거대한 수를 보유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아직은 없다. 기본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나와 아는 사람과의 연결을 시작으로 몇 번의 연결만으로 전세계 친구들을 인맥으로 형성 할 수 있다는 커다란 매력을 가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8월을 기점으로 페이스북 이용자가 늘기 시작해서 2011년 11월 현재 약 45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가입자의 연령분포도 10대부터 60대까지 골고루 가입되어져있으며, 가입자수가 많은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까지로 주로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불과 1년 전에 30대가 주를 이루던 형태에서 20대와 40대의 가입자수의 증가추세를 볼 수 있다. 정책홍보에 있어 20~40대를 겨냥한 관계중심의 홍보가 가능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2.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차이점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공유, 참여, 개방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동일하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인맥형성을 위한 서비스에 무게 중심을 둔다. 이는 관계맺기의 형태로 인한 것이다.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정보 공유를 통한 의견교환적인 성격이 강하며 ‘팔로워’란 용어는 구독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관계성을 표현한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친구’라는 용어로 관계성을 표현한다. 용어의 차이도 있지만 페이스북은 그야말로 친구맺기가 우선이고 그 이후 관계 속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형태를 취한다. 정리하자면 트위터는 정보성이 강하고 페이스북은 관계성이 강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런 차이점을 명확하게 느끼게 해주는 대표적인 것이 이름의 사용이다. 트위터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있긴 하지만 별칭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그런 별칭 사용으로 인해 팔로워 되기를 꺼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페이스북 내에서는 대부분이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친구 요청 시 별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친구 승인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관계성이 강한 특성으로 인해 페이스북에서는 욕설이나 비방의 글을 트위터에서 보다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예의를 갖추어 글을 쓰는 경향이 크다.

3. 페이스북에 가입하기

가. 성/이름/이메일/비밀번호 기입하기

화면이 나타나면 가입하기 아래에 보이는 채워야 할 칸들을 다 채운 다음 ‘가입하기’를 클릭한다.



나. 보안 문자 쓰기

보안문자가 명확한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보안문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 확인 상자 위의 글자들 중에서 ‘다른 단어’라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면 보안문자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동의하는 문구 앞 네모칸에 체크를 하고 ‘가입하기’를 클릭한다.



다. 가입 후, 1단계

자신이 가입되어져 있는 포털 메일(네이버, 다음, 네이버, 지메일 등)을 선택하고 해당 메일주소와 메일의 비밀번호를 써 넣고 '친구찾기'를 클릭하면 해당 메일을 주고 받은 적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미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여준다. 만일 내가 그 안에 보여지는 사람들과 페이스북에서 소통하고 싶다면 해당하는 사람을 체크하고 맨 아래쪽에 보이는 '친구추가'를 클릭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친구요청이 가게 된다. 해당 메일과 연결된 사람들 중에서 아직 메일계정으로 페이스북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초대 보내기'를 통해 페이스북 가입초대 메일을 보내게 된다. 원하지 않으면 '건너뛰기'를 하면 된다.



라. 2단계

2단계에서는 '관심사 추가'로 페이스북 내 페이지에서 관심있는 것을 찾아 선택하거나 건너뛰기를 선택할 수 있다.



마. 3단계

'프로필정보'를 입력하는 곳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학교정보를 넣으면 되는데, 이런 단계들에서 넣지 않고 건너뛰기를 하고나서 자신의 프로필에서도 가능하다.

건너뛰기를 하게 되면 '아는 사람 찾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아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메일주소로 연결된 사람 중 페이스북 가입자들을 보여주게 된다. 연결되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친구요청을 보낼 수 있다. 원하지 않으면 건너뛰기를 한다.



바. 4단계

마지막 4단계는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될 사진을 넣는 단계이다. 페이스북은 관계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본인의 사진을 사용하길 권한다. 캐릭터 사진이나 풍경사진은 관계성에 있어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다 올리고나면 건너뛰기나 저장 후 계속하기를 클릭한다.

사. 이메일 확인

1) 단계를 다 넘어서면 이메일 확인하라는 문구가 화면 상단에 보여진다. '이메일을 확인'을 클릭한다.



2) 메일화면이 열리면 로그인을 하고 메일 중에서 '한 단계만 더 완료하면'이라는 메일을 연다.



3) 열린 메일 중에 '가입을 완료하려면 아래링크를 클릭 하세요'라는 문구 아래 보이는 링크를 클릭한다.



4) 이제 완벽하게 가입이 된 것이다. 가입 하고나면 화면에 건너뛰었던 단계들이 다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꽃 보석반지와 교장선생님



오 영 란

거창 창동초등학교 교사

은주는 작년 3학년 우리 반 여자아이이다. 오늘 우연히 점심시간에 만났는데 새 학년이 되어 좋냐고 하니 그냥 살포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불현듯 떠오르는 작년 어느 봄 날, 은주는 어릴 때 귀얹이를 한 뒤로 잘 들을 수가 없어 치료 중으로 보청기를 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말이 없는 편이고 키가 작아서 앞쪽에 앉았는데 공부를 잘 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항상 선생님을 주시하고, 시키지 않아도 칠판 주위 정리정돈을 잘하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아이였다. 또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면 아주 즐겁게 웃는 해맑은 얼굴을 가진 은주는 무엇보다도 우리 반을 좋아하고 학교생활을 즐겼으며 나를 따랐던 기억이 있다.

그런 은주가 어느날 점심시간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서럽게 울고 있었다. 옆 친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해준다. 며칠 전 현장체험학습 때 3,000원이나 주고 산 꽃 보석 반지를 잃어버렸단다. 그것도 학교 놀이터 그네타기를 하다가 떨어뜨렸는데 그네 밑이 며칠 전 내린 비로 흙탕물이 고여 있어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선생님이 교실에 계시지 않아 은주는 평소 좋아하고 잘 따랐던 교장실로 가서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단다.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꽃 보석 반지가 자기에겐 귀한 물건이고 아깝고 소중한데, 울지 않으려 해도 '엉엉' 소리가 나고 눈물이 난다고 한다.

바깥 놀이터 그네 주변을 보니 교장선생님은 학교 행정실 이주사와 삼과 바가지로 고인 물을 퍼내고 계셨다. 흙탕물 웅덩이에 떨어진 플라스틱 꽃반지, 그 반지 찾기를 하고 계신 것이다. 잃어버린 금도끼 은도끼도 아니고, 플라스틱 꽃 보석반지를 찾느라 두 분이서 작업하시는 모습은 향이 나는 풍경이었다.

어쨌든 다음날 은주는 다시 해맑은 얼굴로 그 꽃 보석반지를 끼고 차분히 자리에 앉아 선생님을 주시하고 있었다. 4학년이 되어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은주일 것이다. 난 그때 신재철 교장선생님과(지금은 퇴임을 하셨지만) 우리 반 친구 은주를 향이 나는 추억으로 오래오래 간직할 것 같다.



행복이 깃든 요가교실



이 영 미

창원천광학교 6-3 서지현

저는 천광학교 6학년 지체부에 재학 중인 서지현 엄마입니다. 제가 학부모 평생교육과 인연을 맺은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 제가 처음 수강한 학부모 평생교육 강좌가 노래 교실이었습니다. 그때의 좋은 기억이 학교 행사에 자주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같이 참여했던 학교 선배어머님들과 가끔씩 만나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티타임을 가진답니다. 이처럼 아주 소중한 만남을 주선해 준 것이 학부모 평생교육 강좌였습니다.

2011년에는 학부모 평생교육 강좌 신청에 많은 어머님들이 요가를 신청하여 요가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요가란 명상과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심신수련방법을 뜻합니다. 요가를 배워갈수록 요가는 우리 아이들과 같은 아이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운동 중 하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제 아이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 제게는 만성적인 근육통과 스트레스가 어깨위에서 떠날 줄 모르더군요. 아마도 우리 학교 어머님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누구나 경험해 보셨으리라 짐작됩니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이 할애 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도 귀한 시간이 될 정도로 뛰어난 요가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습니다. 항상 그 시간이 즐거웠고, 저에게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많은 어머님들도 같은 생각일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만큼 그 날이 기다려질 정도로 저의 몸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일이 생겨 참석하지 못했던 날은 그 일주일이 내내 몸이 찌뿌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항상 예민하고 뭔가에 쫓기듯 살게 되며 아이가 커갈수록 이 같은 고민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뭔가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근심하게 되면 그만큼 마음은 더욱더 지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찾아야 하지만 일반 사회에서 저의 아픔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학교에서 만난 학부모끼리 더욱더 친해지게 되더군요. 선배 어머니들의 뼈아픈 경험도 들을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내 아이를 키워야 할지 배우게 되는 계기도 되었답니다.

그 어떤 모임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모두의 마음을 다 흡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생각은 모두 다르니까요. 하지만 지금 천광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학부모 평생교육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어머니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유의 장은 신입생 어머니들에게도 좋은 기회와 경험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시 한 번 한 해 동안 저희에게 요가가 참 재미있고 유익한 운동임을 가르쳐주신 요가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학교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나 교육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지식과 정보보다 더욱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들 스스로가 많이 웃고 즐거워야 제 아이에게도 밝고 환한 미소로 많이 사랑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올해의 좋은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감사드리고 내년 학부모 평생교육에도 즐겁고 유쾌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아낌없는 지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펄벅의 '대지' 를 읽고



백 지 원

창원 삼정자중학교 3학년

대지는 펄벅이란 작가가 지었으며 노벨문학상을 받은 책이다. 얼마나 좋은 책이기에 노벨문학상까지 받았는지 궁금하였다.

글의 시작은 왕룽이 오란이라는 부자집의 하녀와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왕룽은 오란과 결혼하여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땅을 了게 된다. 또한 자식도 가지게 되고, 또 그 땅으로 돈을 벌게 된다. 그리고 최후에 그들은 그들이 사는 마을에서 가장부자가 되고 오란이 있던 부자집 주인의 집까지 사게 된다. 둘의 근면 성실함과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땅을 팔아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왕룽이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 한 인간이 땅을 일궈가는 내용이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보니 펄벅이라는 작가는 그 시기의 중국의 상황을 잘 나타내준 것 같고,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자연에서 성실하게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감명 깊은 책이었다. 왕룽이 결혼하고, 땅을 사고, 사랑하고, 집을 사고, 죽어가는 그러한 인간의 삶을 잘 나타낸 것 같다.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왕룽의 부인인 오란이 부자집의 하녀였지만 그녀와 왕룽이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주인집을 사는 부분이였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 자신이 통쾌함마저 느껴졌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면 그만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내 생활을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성실하게 꾸려나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 책은 중국의 농민들의 생활에 대해 매우 잘 표현한 것 같았다. 중국의 그 시대 상황에 대해 잘 몰랐지만 이 책을 통해 중국의 농민들의 삶의 모습을 잘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거리가 먼 내용이지만 농사지으시는 외할아버지의 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뜻 깊은 책이었다. 역시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 땅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땅을 사랑하고 아껴야할 것 같다. 왕룽의 아들들 보다 왕룽의 땅을 사랑하는 마음에 내 생각은 더 기울어지는 느낌이다.



샘에게 보내는 편지



하 승 우

의령 부림초등학교 교사

이 책의 저자 '대니얼 고틀립' 박사는 학습장애를 극복하고 정신의학 전문가가 되었으나 서른세 살에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고, 그 후로 휠체어에 의지한 채 지내게 된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과 아내, 누나,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삶의 지혜와 통찰력,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된다. 몸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상담을 통해 수많은 환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으며, 그 또한 자신의 내면의 악마와 싸우며 성장하고 인간과 마음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역경을 이겨내고 장애를 극복한 이 할아버지는 손자 샘이 자폐 진단을 받게 되자 또 한 번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온 딸이 이제는 장애를 가진 아들을 평생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딸과 손자 샘, 그리고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한 번 일어서기로 다짐한다.

이 책은 손자 샘을 위해 세상과 인간의 마음, 인생에 대해 들려주고 싶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을 편지로 엮어놓은 것이다. 편지 속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손자인 샘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외로운 이 세상의 모든 '샘'에게 들려주는 듯하다. 책을 읽고 있는 동안은 어쩌면 이 자상한 할아버지께서 나에게만 위로, 혹은 지혜를 담은 마음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주변에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단 한명의 친구가 없을 때, 나에게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지 대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때 이 책을 읽어본다면 분명 영혼을 울리는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세상이 나에게 맡긴 책무, 내가 이 세상의 일부가 되어 또 다른 일부를 기꺼우어가고 있다는 나에게 대한 확신과 사랑을 키울 수 있기도 하다.

고틀립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종일 앉아 있어서 욕창이 자주 생겼는데, 잘 낫지도 않았으며 나왔다 하더라도 재발되기 일수였다. 그래서 의사와 상의한 끝에 수술을 하게 되었고, 절망한 채 입원실에 엎드려서 지내게 된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꿈을 꾸게 된다. 꿈에 나타난 하느님은 '너에게 세상의 일부를 맡길 테니 잘 돌보도록 해라. 그것이 너에게 부여된 임무다. 더 크게도, 더 좋게도 만들지 말고 그저 잘 보살피기만 해라. 때가 되면 내가 다시 가져갈 것이니, 그

때 너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할아버지는 하느님이 자신에게 맡긴 세상의 일부를 쳐다보았는데, 그것은 겨우 3mm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욕망의 크기만 한 그 작디작은 3mm를 돌보는 것이 이 할아버지의 막중한 책임이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깨닫게 된다.

나에게도 주어진 세상의 3mm쯤 되는 책무가 있고, 지금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특수교사로써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어렸었고 의욕이 넘쳐났던 신규 때의 나는 그 3mm쯤 되는 그것을 더 크고, 더 좋게 보이게 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었고, 너무나 애를 썼었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빨리 낙담하고 크게 좌절했었다. 이 책에서는 자신의 책무를 더 크게도, 더 좋게도 만들지 말고 그저 잘 보살피기만 하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좀 더 일찍 이 책을 읽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잠시 생각해본다. 이제 나는 내게 주어진 소중한 3mm를 위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잘 보살피고 있으며,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며 손잡고 앞으로 걸어간다.

영혼을 울리며 마음을 다독여주는 글귀가 너무나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내게 더 와 닿았던 몇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지도를 그렇게 꼭 움켜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든 너무 꼭 쥐고 있으면 힘이 들기 마련이다.

힘껏 쥐고 있던 걸 놓으면, 대신 무엇을 잡을 수 있을까? (p.79)

이슬람 신비주의에 이런 금언이 있다.

'잃어버린 것을 놓고 마음이 목 놓아 울 때, 영혼은 새로 얻을 것을 놓고 춤을 춘다.'
(p.138)

상처는 원래 스스로 아물게 되어 있다. 우리의 허기진 자아가 '고통아, 이제 그만 사라질 때도 되었잖니'하고 재촉하지만 않으면 된다.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 고통도 감정이다. 그러면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 법이다. (p.203)

우리 중에 고틀립 할아버지가 편지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던 '쌤'이 아닌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쌤이다. 할아버지의 따스하고 온화한 미소가 떠오르는 이 평화로운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마주하고 등을 토닥여주면서 자신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은 쌤 말이다.

작품명 : 환희



박 정 심

- 한김해 수남초등학교 교감
- 경남초등미술연구회 회원
- 경남수채화협회 회원

고입 전형방법 개선

이러해서 필요합니다

고입 전형방법 개선은 필요합니다



고입 전형방법 개선은 과거 연합고사 부활이 아닙니다

과거 연합고사

- 연합고사만으로 고입전형 실시
- 문제풀이 위주 수업 등 교육과정 파행 운영
- 방과후 보충수업 및 야간학습 실시
- 고교 서열화로 위화감 조성
-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
- 지나친 경쟁으로 창의·인성교육 약화

고입 전형방법 개선안

- 내신성적+선발시험으로 고입전형 실시
- 중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
- 교수·학습 방법 개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 선발기능의 약화로 과잉경쟁 불필요
- 비교과 영역의 내신 반영으로 인성교육 강화
- 사교육비 증가 부담 완화
(사교육비 주요 유발요인은 내신성적 관리로 인함)

필요성

-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
 - 면학 분위기 조성
 - 학습결손 예방과 교실수업 개선
 -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 학력향상에 대한 도민의 지속적인 요구
 -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성적
(학업성취도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 고입 전형방법 개선 요구 고조 (연구용역 결과 68.2% 개선 찬성)
- 선발시험을 통한 보충 기회 부여
 - 내신성적 낮은 학생 => 만회 기회 제공
- 인성함양 및 생활지도 내실화
 - 중학교 3학년 2학기말 안정된 교실 분위기 조성
 - 기초·기본이 준비된 자신감있는 고등학교 출발 기반 마련

고입 전형방법 개선(안) 이릅니다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일반고, 자공고 적용

선발시험 7개교과
(국/도/사/수/과/기/영)

전 학년 내신 반영
(1년20%/ 2년30%/3년 50%)

내신성적
50%

선발시험
50%

2015학년도부터 적용